



# 말과 이론이 아니라 뜻과 실천이 중요해!

지난번에도 울산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흔들려서 여기에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한마음 여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죠.

부처님을 한 분만 모셔 놓은 것은 그 부처님이 여러분과 몸이 틀어 안된 것이요, 여러분과 마음이 틀어 안된 것이요, 여러분과 생명이 틀어 안된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옛날부터 '내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라. 내 골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미래의 정신계가 지금 물질계의 참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항상 기복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기복으로 해라, 말아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미래의 정신계와 더불어 같이 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님이든 아니든,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 아닌 바가 없으니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불(佛)은 영원한 근본 즉 생명, 움직여지지 않는 근본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敎)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즉 말하자면 끝간 데 없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불 바람 흙, 이런 것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습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려면 말도 길고 그렇지만 말한 사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마리고 어디가 발인지도 모르게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납득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끝간 데 없이, 지금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부처님께서 '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였고 '우주 전체의 불바퀴'라고 하였고 '우리 불성을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불백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백퀴라는 것은 그 생산처는 바로 내 가슴에 직결돼 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울산 지역에 살면서 담을 뚫고렇게 쳐 놓고 담 바깥에서는 천아만야한 데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만 아주 안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땅속이나 물속이나 저 허공이나 다른 혹성이나 별성이나 어디고 아니 다니는 데 없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그게 바탕이 돼서 오신통이라는 문제도 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법바퀴를 말입니다.

그 법바퀴를 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모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앞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충만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바로 50%의 저 언덕을 몰라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 50%를 생각지도 않고 현재 50%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생명이 생겨나서 미생물의 시대도 있었고 곤충의 시대도 있었고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난폭한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또 인간이 될 수 있는 진화력을 가지고 실험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증발해 버리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당에 가서 절이나 하고 음식이나 놓고 돈이나 놓고 잡되게 해 달라고 빌면 불자가 되는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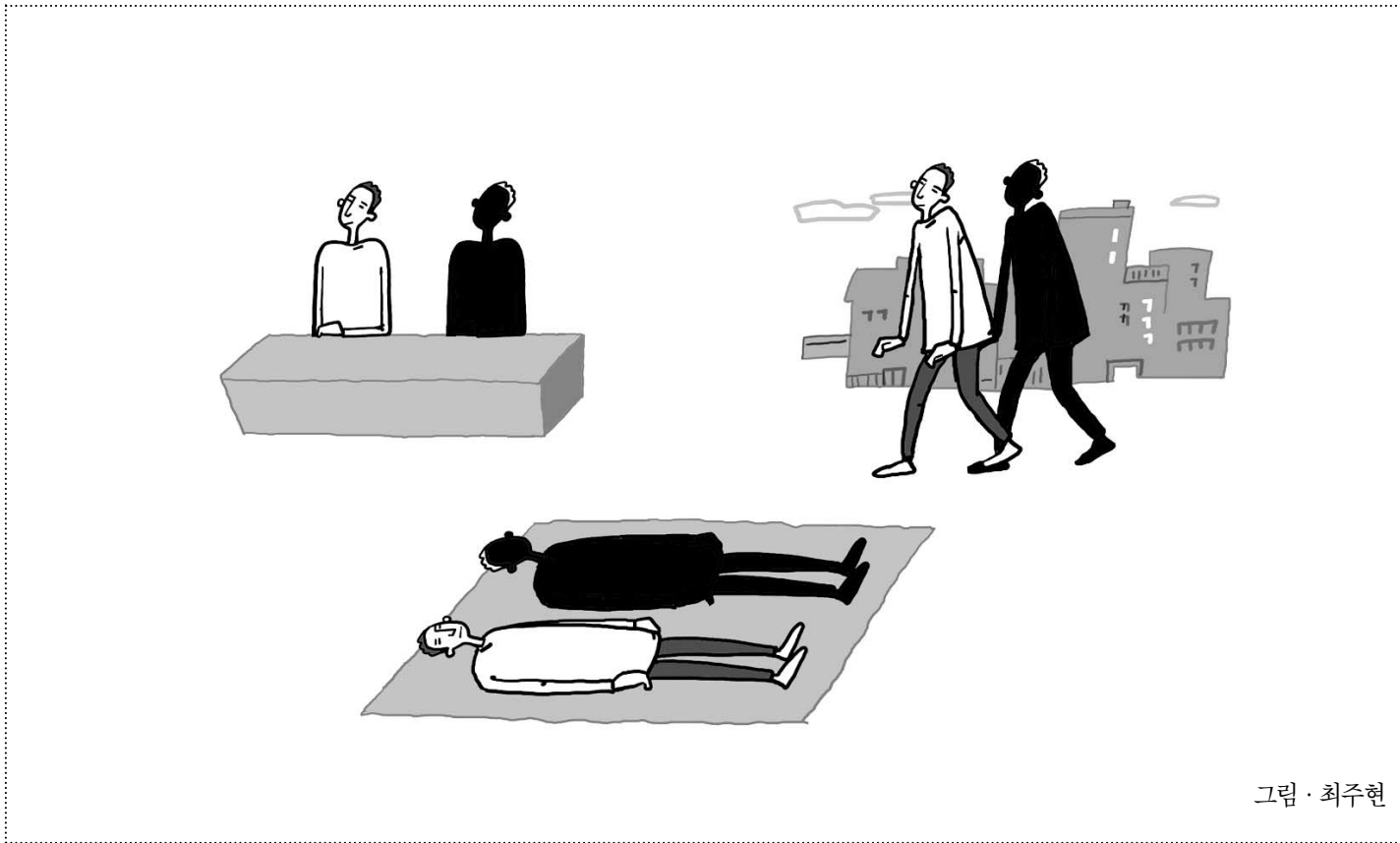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알지 마십시오. 어느 종교인을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 불자입니다. 불자는 불자대로 불자 노릇을 해야 불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의 근본을 알고, 우주의 근본이 자기의 근본 속에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모두가 자기 마음속의 근본에 가설이 돼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허공을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스님네들 고깃덩어리를 믿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도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고 돌아가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바로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여지지 않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끌고 잡니까. 저 허공에 부처가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한 것만큼, 인연을 맺은 것만큼, 악으로 맺었으면 악이요 선으로 맺었으면 선이요, 악업 선업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그 모임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시키는 대로, 파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벌어지는 것은 바로 도청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봐주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잘되겠지, 이 직장을 벗어나서 판 데로 가면 잘되겠지.' 이래도 업식들은 여러분의 합쳐진 그 도청 입력기에 입력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면서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입력이 되는 것은 도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입력이 됩니다. 도청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도청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였는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알니까? 그러나 본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을 가졌을 테고 남을 인양게, 이익하지 못하게 생각했다면 바로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한테 모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찰나에 연락이 다 되며 한 찰나에 들고 나며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현실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다 하고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사실

##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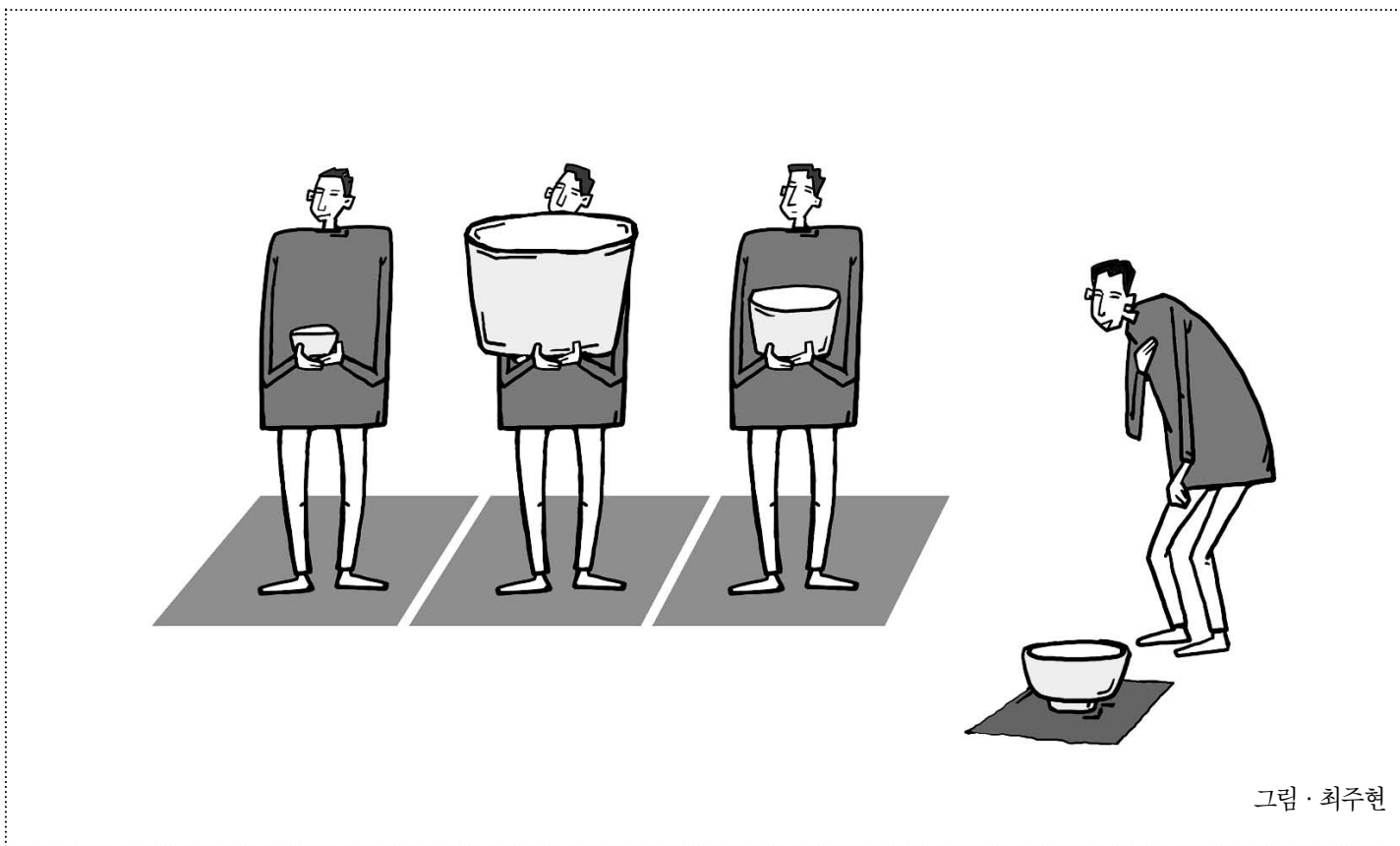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팩시밀리가 여러분한테 있고, 탐지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무선통신기가 여러분한테 있고, 천체망원경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건 천이 통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속명통, 이 다섯 가지이고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걸 굴릴 수 있는 지배인을 바로 누진통이라고 그림니다. 누진, 즉 레이더망도 두뇌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을 잘 생각해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숭상하고 나가야 합니다. 불자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바로 불자도 나오 법신도 나오 움직여지는 화신도 나옵니다. 각자!

나는 여러분이 딱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병이 이렇게 이리데, 암이었는데, 또 백혈구가 이렇게 돼서 백혈병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니까, 인제 꼭잡없이 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그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환관이 막혀서 못쳐 있는 것을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놔다면 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이라고 하는 데 속지 마시고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능력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재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재료로 있다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발전소가 돌아갑니까? 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날마다 삽니까?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각자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혹성입니다.

그 혹성 속에는 빛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체가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그렇지만 지금 그게 운행을 안 해 준다면 내가 못 사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별성인 것입니다. 혹성을 몸체라고 한다면 별성은 살고 있는 그 생명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이년까지 왔다는 증거서입니다. 증명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자체를 한번 뜯어다보시고 한번 바깥을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보면 더럽고 무서운 징그럽고 그렇지만, 그 징그럽고 더럽고 무서운 것들이 전부 나를 운행해 주고 나를 이렇게 움직여지게 해 주고 건강하게 해 주고 또는 파워를 일으켜서 나를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서없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말마따나 '바담 풍' 하더라도 '바람 풍' 하라고 제자들더러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두서없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생활 자체가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고,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면서 살림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우리 몸뚱이라면 이 몸뚱이 속에 사는 생명체들처럼 우리도 그 지구 속에 지구를 집을 삼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붙어서 살고 있을까요? 작은 큰든 모두 생긴 것도 다르지만 자원들도 달라서 이 세상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기 그릇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접시도 사발도 있어서 그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그렇죠. 도량들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어서, 그걸 찌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성돼야만이 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법을 가르치면서 바깥으로 찾지